

### 왕초보를 위한 사진 촬영 기초강좌④

## 사진의 완성도를 결정짓는 '구도'

사진을 결정하는 것은 노출, 초점, 구도 등 3가지 이다. 지난 3월호부터 조리개와 셔터속도로 적정노출을 맞추고 어두운 곳에서 셔터속도가 나오지 않을 때는 ISO(감도)를 높여서 셔터속도를 확보해 노출을 맞추자 했고, 5월호에서는 측광모드에서 측거점에 의한 초점을 맞추어 원하는 사진을 표현하자고 했다. 7월호에서는 빛의 각도를 활용해 작가가 의도하는 작품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이번호에서 사진의 완성도를 결정짓는 구도까지 공부하고 나면 노출, 초점, 구도의 3박자가 어우러져 정말 화면의 짜임새 있는 좋은 사진을 만들 수 있다. 특히 '빛'을 보는 시각까지 익혔다면 그야말로 환상의 조합이다. "세상은 악보요. 사진은 연주다." 사진가는 전체를 총괄하며 지휘해야 한다. 주제, 톤, 콘트라스트, 계조, 색상, 프레임속에 짜임새있게 사진의 요소를 배치하는 것까지... 이제부터 구도를 공부해서 나만의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지휘자가 되보자.

〈편집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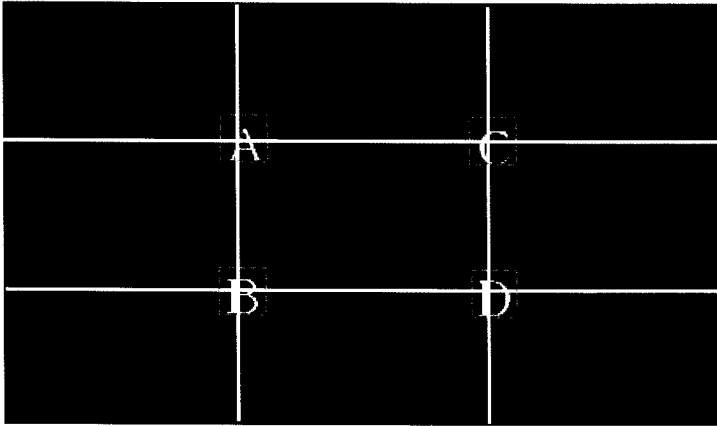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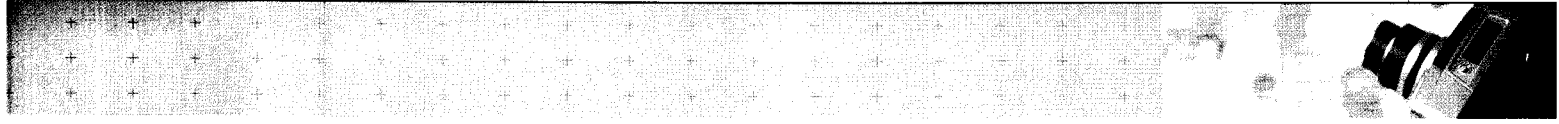
### • 사진의 구도 (Composition)

사진에서의 구도는 프레임(Frame)이라는 사각의 틀속에 작가가 의도하는 화면을 구성하는 것으로 딱히 정해진 것이 아니다. 자연의 일부, 또는 내가 촬영하고자 하는 대상을 어떻게 정리해서 짜임새 있게 배치 할 것인지, 카메라 앵글을 통해 잘라내는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할뿐, 절대적으로 지켜야하는 규칙은 아니다. 따라서 사진의 구도는 사진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포맷을 가지게 된다. 사진은 촬영자의 의도에 따라 달라지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구도를 맞춰가며 촬영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사진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초보 촬영자의 경우 구도의 기초적 기법을 가이드라인삼아 활용하다보면 수평선 · 수직 · 원 · 삼각형 · 황금분할 구도 등 자연스레 독창적이고 개성이 넘치는 작품사진을 연출하게 될 것이다.

### • 다양한 사진의 구도

#### 1) 황금분할선에 의한 구도

황금분할(黃金分割, golden section)에 대해 들어보았을 것이다. 먼 옛날 그리스인들이 발견했다는 황금분할은 1:1.618...의 비례를 말한 것으로 한 자리수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황금비에 근접한 길이의 비는 5:8 이다. 인간은 황금비를 보았을 때 무의식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되며, 이는 자연에 황금비를 가진 사물이 많아, 본능적으로 "자연의 질서"를 느끼기 때문이라고 한다. 황금비는 고대 그리스에서 발견되었고, 가장 조화가 잡힌 비(比)로서 이와 같이 이름



하게된 것인데, 르네상스의 볼로냐의 수도승(修道僧) 루카 파치올리(Luca Pacioli)에 의하여 '신성비례(神聖比例)'라고 이름할 정도로 중요시되었다. 고대 이래로 수많은 예술작품들이 아름다운 황금비의 구도를 따라왔다.

황금비를 볼 수 있는 그림으로는 대표적으로 '밀레의 이삭줍기'가 있다. 균형이 잡힌 구도 속에 황금비를 볼 수가 있다. 지금까지 남아 있는 유물 중 황금분할을 적용한 가장 최고의 예는 기원전 4700여 년 전에 건설된 피라미드에서 찾을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인류가 황금분할의 개념과 효용가치를 안 것은 훨씬 그 이전부터일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피라미드는 인류역사를 통해 사람들을 가장 매료시켜온 건축물의 하나이다. 황금분할에 대한 선호는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이를 이용한 상품들에 널리 사용되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그 예로 액자, 창문, 책, 십자가, 신용카드 등의 가로, 세로 비율 등에 황금분할의 비율이 적용된다. 특히 신용카드의 비율을 예로 들면 신용카드의 가로와 세로 비율은 각각 8.6cm와 5.35cm로 이 둘의 비율은  $8.6/5.35=1.607$ 로 황금비율에 의해 카드가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A4용지나 명함, 담뱃갑 등도 황금비를 하고 있으며, 또 하나 바로 여러분이 사용하는 디카의 화면도 황금비를 이루고 있다.

### 2)수평선 구도

수평선은 모든 선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해안선, 들판, 지평선, 구름사진 등 자연풍경사진에 사용되며 정적이면서 고요하고 평화로운 느낌과 안정감을 준다.

화면에 수평을 이루는 구도로 편안한 느낌을 주기는 하나, 개성은 없으며 평범하다. 중앙을 분할하는 수평선구도는 화면을 거의 반으로 나누기 때문에 수면을 중심으로 호수를 촬영할 때 적절한 가로와 세로를 배치하면 평안한 느낌을 주는 구도이다.

### 3)수직선 구도

수직선 구도는 주로 건축물의 조형미를 강조하고 싶을 때, 숲속의 나무 사진, 풍력발전기 등에 사용되는 구도로 높리와 깊이 감, 강한 힘과 동적인 느낌을 나타내고자할 때 적합한 구도이다. 수직선은 중앙감을 느끼게 하나 수직, 수평선을 결합시키면 수평선의 정적인 느낌과 수직선의 동적인 느낌이 세로선의 깊이가 더해져 안정감과 엄숙함이 강하게 나타나 합리적인 구도이다. 이지적이고 미래적인 세계를 표현하는데 적합하다.

### 4)원 구도

원 구도는 중앙 중점구도로 가장 일반적이며 화면의 중앙에 보는 이의 시선을 집중시킨다. 주제에 대한 강한 인상을 남길 경우 자

#### 황금분할선이란?

사진의 상하좌우를 3등분하여 주 피사체를 그 선상에 보이게 촬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구도는 사진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정된 마음을 갖게 하고, 사진 상으로는 공간의 여유와 시간을 느낄 수 있다. 이 구도의 주의사항은 인물을 촬영할 때 공간이 많은 쪽으로 시선 처리를 함으로써 더욱 안정된 사진을 얻어야 한다.

이런 구도를 연습하려면 TV에 나오는 드라마를 많이 보면 알 수 있다. 드라마의 내용이 아니라 화면의 구성을 보면 한쪽으로 인물이 치우친 화면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황금분할구도인데, TV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정감 있고, 편안한 화면을 보여주기 위해 거의 항상 촬영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밀로의 비너스는 대좌를 제외한 전체의 높이가 약 209cm이고, 머리는 약 26cm이므로 거의 팔등신 상이라 할 수 있다. 미술평론가의 해석에 따르면, 이 상의 여러 부분이 5:8의 비율로 되어 있다고 한다. 이 비율이 상 전체의 구성에 있어서 매우 안정감을 주고 있는 것이다. 즉, 1:1.6=5:8의 비율에 의한 것이다. 룬더리가 멋져 보이는 이유는 배꼽을 기준으로 상체와 하체의 비율이 황금비를 이루기 때문이다. 황금비는 황금과 같이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한다.

사진의 구도에 있어서도 같이 적용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인물이나 풍경의 주제를 가운데로 몰아넣는 경향이 있다. 아마 카메라의 초점 맞추는 부분이 중앙에 있기 때문이리라. 그렇다면 화면의 가운데점을 기준으로 피사체를 중앙에서 비껴가게 찍어보자. 수평선일 경우 밑에서 3분의 1이나, 3분의 2 지점에 위치시키면 된다. 이 정도면 일단 황금비를 따른 사진이 된다. 가장 안정적이고 편안함을 주는 구도가 된 것이다. 반 셔터를 눌러 초점을 맞춘 후 화면을 가장자리로 이동하면 주제에 포커스가 맞는 사진을 얻을 수 있다. 화면을 3등분해서 보는 습관을 가지면 구도 잡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황금비는 절대 만능이 아니다. 오히려 너무 몰입하면 고정관념이 될 수도 있다. 창작에 있어 고정관념은 금물. 그렇지만 우선 황금비를 이해하고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 사진이나 다른 예술을 바라보는 안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주 쓰이며, 주로 곤충이나, 동물, 꽃사진 등 자연을 대상으로 촬영하는 경우가 많다. 단조로운 하나의 피사체를 더욱 부각시킬 때 이용된다. 단점으로는 보는 이에게 답답함을 줄 수 있고 주제를 지나치게 화면 가득 채우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 접사에 주로 응용되는 중앙중점구도에서는 주 피사체와 대비되는 주변색으로 화면을 구성하여 주 피사체를 효과적으로 돋보이게 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 원구도의 촬영은 가장 초보적이라 할 수 있겠다.

#### 5)삼각형 구도

삼각형 구도는 사진의 기본적인 구도이며 원형 구도와 함께 중앙 집중적이다. 주로 산이나, 궁궐, 한옥 등 풍경촬영에서 쓰이는 구도법으로 화면의 아래쪽에 무게를 주어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 좌우가 대칭되어 정적인 느낌을 주어 다소 평범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만, 많이 사용되는 구도이기 때문에 쉽게 공감을 느끼게 한다. 삼각형구도의 정반대인 역삼각형 구도도 있다. 넘어질 것 같은 불안정감을 주나, 날개짓하는 갈매기나, 새를 역삼각형으로 촬영하면 자연스럽다. 복합된 삼각형 구도도 있다. 삼각형 구도가 한 화면에서 여러 개가 생기는 것으로, 웅장하고 강력함, 새로운 힘, 긴장감이 발생하며 변화가 풍부해서 주로 산악풍경에 많이 쓰인다.

#### 6)곡선 구도

곡선 구도는 영문 S자를 연상하게 하는 구도이다. 유연성과 율동감을 표현할 수 있는 구도로써 주로 꾸불꾸불한 길을 촬영하거나, 오솔길, 다원의 녹차밭, 언덕배기의 감자밭 등을 표현하면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미지의 깊이를 느끼게 한다. 개울이나, 계곡, 해변과 같이 물 흐르듯이 부드러운 율동감을 표현할 때 적합하고 더없이 좋은 구도이다.

#### 7)사선 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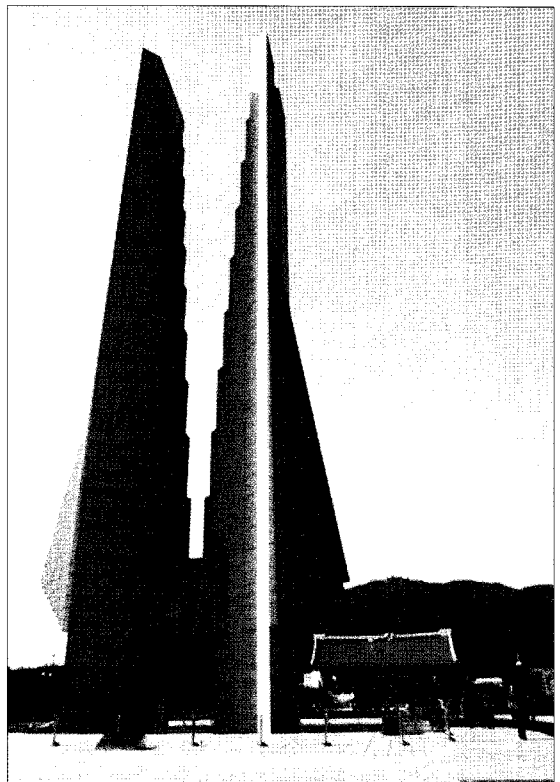
사선 구도는 기차길이나 자동차 질주 같은 사진을 주로 촬영하며 속도감, 움직임, 방향 감, 공간적 깊이 감을 표현할 때 적합한 구도이다.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자주 쓰이지는 않지만 카메라 각도에 주의하여 경사구도로 촬영을 하면 장소에 따라 색다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주 피사체가 사선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정적인 이미지도 동적인 느낌을 줄 수 있으며, 화면 전체가 움직이는 것 같은 대단히 강한 운동감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여러 개가 복합되어야 느낌이 강하다. 불안정한 느낌을 주는 구도법이다.

#### 8)대각선 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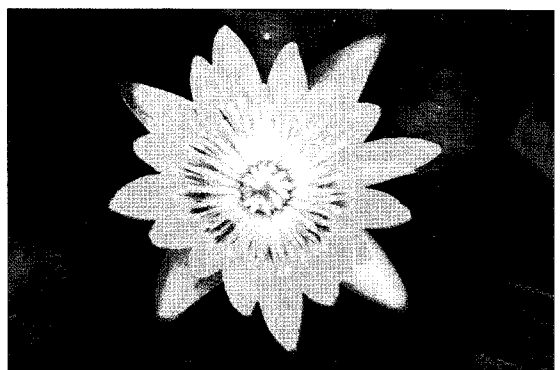
대각선 구도는ダイナ믹하고 긴박감이 흘러 다른 구도에 비해 불안정하기는 하지만 강한 원근감과 집중감, 화면에 힘을 넣어주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구도이다. 혼한 주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표현으로 단조로운 주제도 좀 더 박진감이 넘치게 표현 할 수 있다. 단점으로는



예제1. 수평선 구도



예제2. 수직선 구도



예제3. 원 구도



불안정한 구도에 의해 실패할 확률이 높으나 서로 대비되는 사막의 모래언덕과 푸른 하늘을 색과 면을 살려 촬영하면 좋은 작품이 된다. 대각선 구도로 촬영하는 대표적인 모델은 교량, 다리 사진이다. 수평적인 다리 사진은 밋밋해 보이기 때문에 교량 밑에서 올려보며 대각선 구도로 웅장함과 거리감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다. 양 대각선 구도도 있다. 1점으로 모이게 하는 구도법으로 2개의 대각선이 서로 교차되면서 점점 작아지는 구도이다. 원근감이 극명하게 표현되며 그 소실점으로 시선이 집중하게 된다. 거리풍경 사진에서 많이 쓰인다.

9)방사형 구도

방사형 구도는 주제와 부제를 구분지어 주는 주제를 부각시키는 구도이다. 환상적인 광경과 세련미와 울동감이 큰 장점이며, 표현이 어렵다는 것이 단점이지만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라 했으니 노력하면 언젠가는 하늘이 열리는 환희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방사형구도는 이른 아침 숲속의 나무사이로 들어오는 빛이나, 석양이 질 무렵 구름이 많은 날 구름위로 혹은 아래로 빛이 퍼지는 광경을 볼 수 있는데 아름다운 순간을 촬영하기에 아주 효과적인 구도이다. 빛이 퍼지는 현상은 짧은 순간에 이루어지므로 사진가는 기다림을 배워야 한다. 비가 그친 다음날은 일출과 일몰이 모두 아름다우니 예비할 줄 알아야 하고, 카메라를 항상 휴대하자.

10)대칭형 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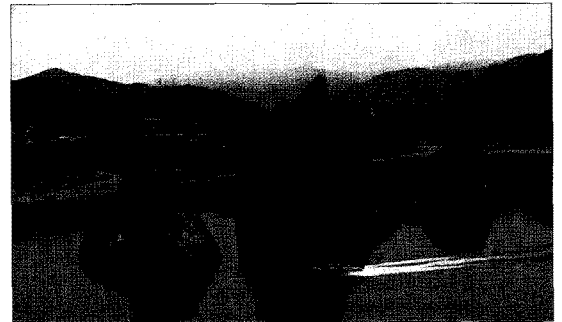
대칭형 구도는 화면의 상·하·좌·우를 나누어 대칭되는 효과를 주는 구도이다. 질서정연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 주지만, 단조로우면서 엄격한 틀이 형성되어 다소 딱딱하고 경직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강하게 대비되는 색의 대상을 양분하여 표현하거나, 물에 비친 반영사진에 주로 사용된다. 대칭형 구도로 반영사진을 찍을 때는 물 반사가 없는 날, 즉 바람이 불지 않는 날 촬영을 해야 한다.

11)엿보는 구도

근경의 숲이나, 벽 사이로 보이는 중경이나 원경을 엿보는 구도이다. 또한 창문이나, 뚫어진 창호지 틈을 통하여 피사체를 바라보기도 한다. 이때 평범한 풍경이라도 특별한 의미와 은밀한 매력을 느끼게 된다. 지금은 낡아서 점점 사라져가는 폐염전의 소금창고에서 이 구도를 많이 활용한다.

12)터널형 구도

터널형 구도는 바위를 타고 내려오는 폭포의 물줄기나, 푸른 이끼계곡의 흐르는 물줄기같이 어둡고 밝은 부분이 분명하여 명암의 차이가 뚜렷할 때 계류의 흐름을 서터속도를 느리게 해서 흐르듯이 표현할 때 아주 적합하다. 그밖에도 곱게 물든 단풍잎이나, 꽃들을 액자처럼 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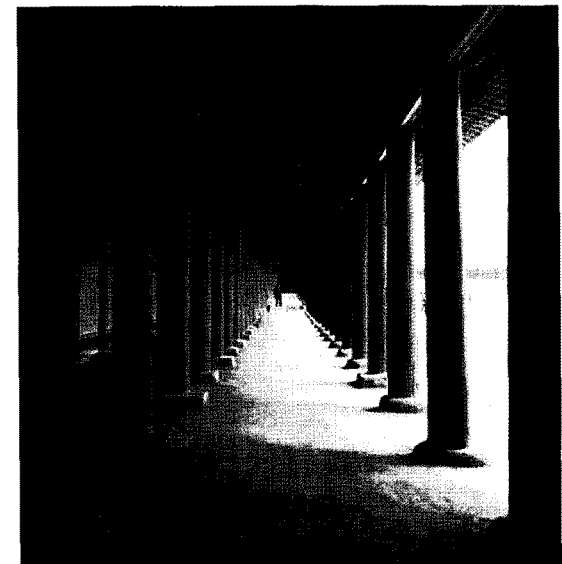
예제4. 삼각형 구도



예제5. 곡선 구도



예제6. 사선 구도



예제7. 대각선 구도

게 해서 인물을 촬영하는 프레임 기법, 야생화 군락지처럼 집단을 이루고 있는 많은 피사체를 한 화면에 담아 낼 때 유용한 바둑판 구도도 있다. 주의 할 점은 눈에 띄는 주제를 강조할 수 있도록 카메라의 각도를 바꾸어 보며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삭제 시키고 구성미 있게 화면을 배치해야 한다.

• 사진구도의 3가지 원칙

1)구성이 돋보이게 하라

구도에서 구성이 돋보이는 사진은 작가의 의지를 갖추고 어떤 것을 강조하며 어떤 것을 생략하는가에 의하여 화면에 촬영자가 의도한 주제의 느낌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는 이로 하여금 공감을 얻도록 구성해가는 조형행위를 말한다. 사진을 처음 시작한 사람 대부분은 눈으로 본 것과 사진으로 보는 것 사이에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감지하게 된다. 즉 시각적인 느낌대로 사진이 표현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사람의 눈은 1초당 24회 정도의 순간을 기억한다고 한다. 영화의 프레임은 인간의 이런 식별력을 응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초당 24개의 화면이 연속으로 돌아가면서 정지동작이 연속동작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람의 눈은 분위기와 느낌을 동시에 받아들이며 입체적으로 사물을 인식한다. 반면에 사진은 평면적으로 사물을 표현하기 때문에 주어진 사각의 틀 안에 표현하고자 하는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배치해야 좋은 사진이 된다. 구성이 없는 결과물은 단순한 기록 사진에 불과하다. 구도를 특별히 '배치의 기술' 이라고도 한다.

2)주제를 명확하게 하라

구도를 잡을 때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으나 가장 1차적인 목적은 주제의 강조이다. '주제' 는 작가가 표현하고 싶은 의도를 말하는데 목적이 '사랑' 인지, '슬픔' 인지, '외로움' 인지 등은 주제가 될 수 있지만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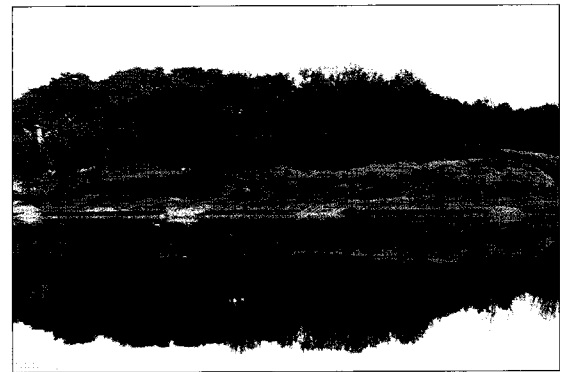
진에는 찍히지 않는다. 사진에 찍히는 것은 산이나 바다, 나무와 건물이 될 수도 있고 동물이나 사람의 눈동자를 표현함으로 해서 주제를 전달해야 한다. 사진의 주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소재를 통한 주제를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작가가 의도한 주제를 아름답고 확실하게 표현하려면 주제가 되는 대상을 클로즈업하여 화면을 배치하고 주제를 희석시키는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하게 삭제하는 방법도 촬영자가 의도한 주제를 명확하게 하는데 효과적이다. 주제를 부각시키지 못하는 극단적인 명암의 차이가 있는 소재, 피사체와 배경 색감의 부조화 등의 요소들은 촬영을 피해야 한다. 주제의 독특한 형태나 패턴, 시선을 잡아끄는 색의 대비 같은 시각적인 사진 소재들을 바라 볼 수 있는 감각도 '사진의 기술' 이라 하겠다. 사진의 기술 + 예술성 있는 소재 = 작가의 사상과 의도가 표현된 효과적인 사진이라는 공식이 선다. 숙달된 기술은 좋은 사진 창작에 가장 중요한 필수조건이다.

3)화면을 단순하게 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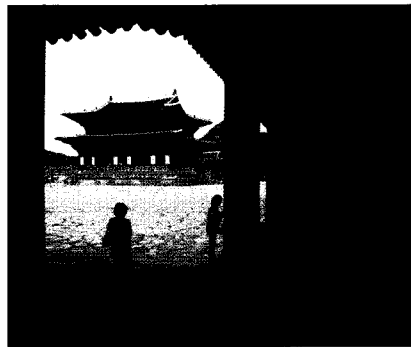
구도에서 작가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화면을 단순하게 처리해야 효과적이다. 주제가 분명한 사진은 대부분 배경이 단순하



예제8. 방사형 구도



예제9. 대칭형 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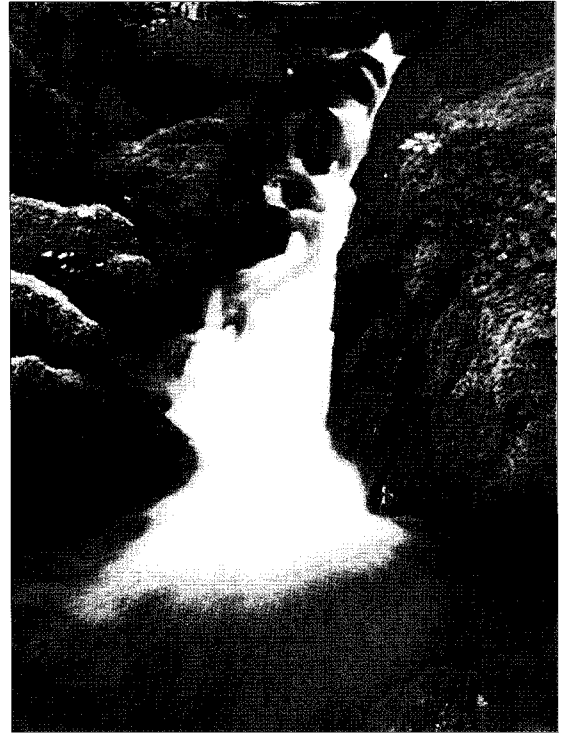
예제10. 옛보는 구도



거나, 배경을 아웃포커스 시켜서 주제를 돋보이게 부각시킨 것을 알 수 있다. 좋은 사진을 자세히 보면 공통된 요소가 있다. 불필요한 여백이 없다는 것이다. 앞의 구성에서 말했듯이 인간의 눈으로는 사물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은 피사체만 보고 거리가 먼 배경은 인식을 잘 안하는 경향이 있어 주제가 아름답고 좋았으나, 평면으로 표현된 사진에서는 가까이 있는 주제의 물체나 먼 곳에 위치한 배경의 전깃줄이나, 빨랫줄, 불필요한 나무, 건물 등 때로는 지평선이나, 수평선에 주제인 인물의 목을 가로 지르기도해서 사진을 버리는 수가 종종 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불필요한 요소나 선들을 과감히 버리고 절제된 화면 구성을 하여 주제를 돋보이게 하고 배경의 황금 분할선에 의한 적절한 배치와 주 피사체와 배경색이 겹치지 않도록 색의 대비효과나, 광선을 통해 배경을 분리시켜 시각적으로 안정된 기본적인 구도 방법으로 화면 구성을 하는 것이다.

• “세상은 악보요 사진은 연주다”

구도는 어떠한 조형 표현에도 꼭 붙어 다니는 문제로 사진도 예외는 아니며 한정된 평면에 화상을 잘라내어 무엇인가를 표현하기 위하여 그 화면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따라 예술성이 돋보이므로 앞의 ‘구도의 세 가지 원칙’ 만 머리에 새긴다면 “세상은 악보요 사진은 연주다” 여러분은 사진을 연주할 지휘자가 된 것이다. 사진가는 전체를 총괄하며 지휘해야 한다. 어떤 이는 클래식하게, 또 어떤 이는 컨츄리 하게, 힙합을 좋아 하는 이는 힙합 식으로 ... ‘사진은 감정의 울림이다’. 당신의 감정이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것은 사진이 아닐 수도 있다. 감정, 표정, 빛, 색깔, 공기, 냄새, 소리 등 이 모든 것들이 반응해 당신의 사진을 찍게 한다. 세상에는 사진만으로 구사할 수 있는 언어가 있다. 좋은 구도는 눈을 즐겁게 하면서 관심을 끄는 한편 시각적으로 잘 표현된 사진은 단순한 사물로서의 대상이 아니라 의사소통의 중요한 요소이다. 사람의 시선은 어두운 부분에서 밝은 부분으로, 파스텔 톤의 색조에서 원색의 물체로, 화면 전체에서 시각적으로 특징적인 부분을 찾아간다. 이는 초점을 구성하는 선들의 교차점 때문이다. 시선을 끄는 서로 다른 물체들의 선이 평행을 이루면 정적인 느낌을, 수직이나 사선을 이루면 동적인 느낌으로 각인되기 때문이다. 구도는 작가 자신이 자유로운 발상에 의하여 창작하는 것이며, 구도에 관한 서투른 선입관을 가진다는 것은 창작의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구성의 선택에는 참으로 전형이란 것은 없다. 관습적으로 말하는 조화의 원칙 등에 얽매임 없이 전혀 작가의 자유로운 발상에 의하여 대담한 화면을 구성하여 나가는 것을 권유하고 싶다. 자기만의 독특한 개성을 찾아내자. 작품의 승부를 결정하는 것은 작가 자신의 색채감각에 있는 것이다. 밸런스(Balance)와 조화(Harmony) 뿐만 아니라 때로는 불협화음의 미도 있는 것이 현대의 조형이다.



예제11. 터널형 구도



예제12. 프레임 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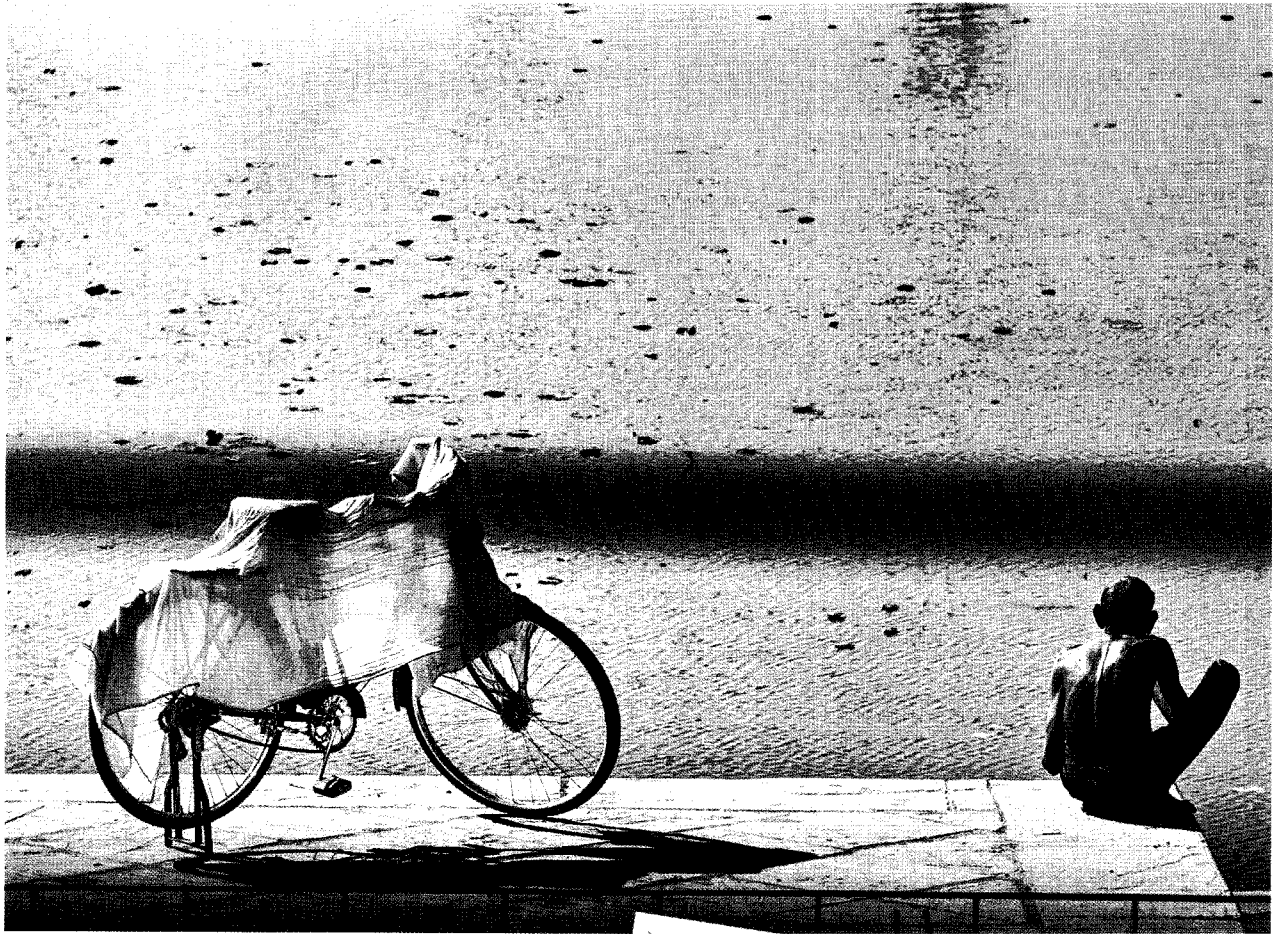


윤정인

생명의 숲 활동가로서 건강한 숲 가꾸기와 자연사랑에 나무와 들꽃들을 하나씩 기록하다가 자치구의 문화원과 애니메이션고 평생 학습사진반 교육을 수료했다. 현재 남양주시 숲가꿈이 생태해설사로 있으면서 길동 생태공원해설사들의 사진기초교육과 구리시 교문동 컴퓨터동아리 사

진기초교육, 남양주시 자치센터 디카사진&포토샵 사진보정교육 등을 담당하며 사진과 함께 이름다운 50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주부이기도 하다. 또한 남편과 함께 사진여행을 하며 2년 뒤 남편의 ‘회갑전’을 계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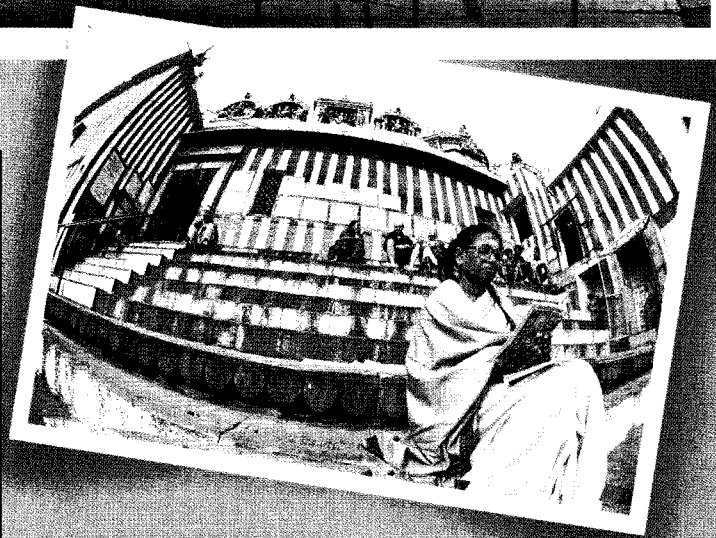


## SIGMA 포베온센서 사진전

사진전시회로는 보기 드물게 시그마 카메라에 장착된 포베온센서 체험 사진전이 8월17일부터 31일까지 총무로 CBL 갤러리에서 열렸다.

보통 사진들의 특정 주제를 하나로 묶어 전시회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반해 프로사진가중 특정 센서를 주제로 전시회를 하는 경우는 이번 사진 전시회가 국내 처음이다.

전시회를 준비한 지용현 사진작가는 "특정 이미지센서의 전시회를 시도하는 자체도 생소한 모험이었고 자칫 상업적으로도 보일 수 있어 망설였으나 사진계에 널리 퍼져 있는 사진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어주고 싶은 마음이 앞서 기획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지용현 2006 제1회 내셔널지오그래픽 국제 사진전 국내 1위, 2006 제1회 내셔널지오그래픽 국제 사진전 미국 본선 3위 (한국인 최초)를 수상하고 2007 개인전 인도 사진전, 2009 시그마 포토스톤 사진의 강의를 진행, 2009 MOMENT 展(기획전) 초대 작가로 작품을 소개한 바 있다.